

최승호 정치학

답안작성 ‘개인지도반’

답안 작성 후 ‘개인별’ 채점 및 강평

: “답안 작성, ① ‘왜’ 해야 하는가? ②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③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 제시 강의

■ ■ 담 당 최 승 호

■ ■ 강의일정 2016년 12/26(월) ~ 1/7(토), 개인별 각 4회 상담(회당 기본 1시간 진행)
※ 개인별 일정은 접수 마감 후 통보(접수마감: 12/24, 저녁 6시)

■ ■ 인 원 총 5명 선착순 접수

■ ■ 수강대상 1. 2년차 이상의 수험기간으로, 정치학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으나,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
2. 1년차의 수험기간으로, 정치학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고, 단기간 내에 답안작성 요령을 습득하고자 하는 수험생

■ ■ 진행방식 1. 수강신청이 끝난 후 수험생 개인별로 강사와 상담일정 조정
2. 개별 상담시간은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시간 단위로 구성
3. 원칙적으로 3일에 1회 개별 상담, 1회당 3문제에 대한 강평 진행
4. 쉽게 가는 정치학 2순환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시험문제로 출제

■ ■ 강의취지 및 내용 1. 왜?, 답안작성이 왜 필요한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범하는 수험 방법론 측면에서의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제3종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2차 과목 중 제3종 오류에 빠지기 쉬운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그리고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공부 방법론의 획일적 적용이 제3종 오류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이나 행정법에 적용되는 공부 방법론의 핵심은 '내용정리→암기→답안작성'이라는 단계의 순차적 진행입니다. 즉,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면 사실 답안작성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 즉 '알면 쓰는' 과목입니다.

반면 정치학 공부 방법론의 핵심은 '답안작성과 내용정리 및 암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답안작성을 해보아야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서 암기해야 할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즉 '아는 것과 쓰는 것이 의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2. 무엇을?, 답안작성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나?

1) 형식의 측면에서

서론과 결론을 잘 쓰는 요령, 대 목차와 중간 목차 그리고 소 목차의 구성 상 포괄성과 배타성을 가지게 만드는 요령, 부제의 현출 등과 같은 답안의 가시성을 높이는 요령, 채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답안의 형식 도출 요령 등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2) 실질의 측면에서

첫째,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기출문제 패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흐름들을 유형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본인만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답안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반드시 초안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초안 작성은 문제에서 제시한 출제자의 의도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개입되는 설계도 작성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기출문제 패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정리한 서브노트나 단권화 교재의 핵심적 내용들 즉 블록들(blocs)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문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블록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출제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최근 한국 정치현실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이 출제될 것에 대비한 추가적인 내용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수험생 개개인들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상담시간(즉 답안 채점 및 첨삭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세부적 조언이 요구됩니다.

■ 2015년 최종합격생 수기 내용 중 발췌

경제학과 행정법과 구별되는 행정학의 특징은 이해보다는 훈련과정이 더욱 어려운 과목이라는 점이다. 시험공부는 일단 과목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해한 내용을 답안지에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경제학과 행정법은 훈련보다는 이해가 어려운 과목에 속한다. 이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일단 이해한 후에는 답안을 정해진 방식대로 쓸 수 있어 답안 작성이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정치학 같은 논문과목들은 반대로 내용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답안을 쓰는 것이 어려운 과목이다. 문제가 질문하는 방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은 하지만 비교적 넓은 틀 안에서 답안이 재량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목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무조건 많은 책과 논문을 읽어서 깊고 넓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읽은 내용을 답안으로 구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훈련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나 역시 글쓰기에 크게 소질 있는 편이 아니어서 답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연습'해야 했다.